

# 평 화 선 언

방사선, 열선, 폭풍, 그리고 그 상승효과가 현세의 지옥을 만들어 낸지 61년—악마에 홀려 핵무기의 노예가 된 국가는 더욱 늘어, 인류는 지금 모든 국가가 노예가 될것인지, 아니면 모든 국가가 자유의 나라가 될 것인지를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도시가, 그 중에서도 특히 죄없는 아이들이 여전히 핵무기의 공격목표가 되어도 좋은지를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점 의심도 없이 대답은 명확합니다. 세계를 핵무기로부터 해방시키는 길도 지금까지의 61년간이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폭자들은 죽음을 선택했다고 해도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지옥에서, 생과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심신을 파헤치는 상병의 고통을 뛰어넘어 자신의 체험을 전하며, 모든 차별과 비방·중상을 뿌리치고 「다른 누구에게도 이런 아픔을 겪게 해서는 안된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양식있는 세계의 시민들에게 퍼져나가 힘찬 대합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핵무기가 지닌 유일한 역할은 폐기되는 것에 있다」가 그 기조입니다. 그러나 국제정치의 리더들은 그 목소리를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10년전, 세계 시민의 창조력과 활동이 쟁취해낸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권고적 의견은 그들을 깨닫게 하여 진실에 눈을 돌리게 하기 위해 매우 유효한 수단이 될 터였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핵무기의 사용·위협은 일반적으로 국제법에 반한다」는 판단을 내린 후, 「모든 국가에는 모든 국면에 있어서 핵군축으로 이어지는 교섭을 성실히 수행하여 완료시킬 의무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핵보유국이 솔선하여 성실히 이 의무를 다했으면 이미 핵무기는 완전히 폐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10년간 많은 나라들, 그리고 시민들도 이 의무를 정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반성의 토대 위에서 가맹도시가 1403개 도시로 늘어난 평화시장회의와 함께 핵군축을 위한 「성실한 교섭의무」를 다하도록 요구하는 캠페인(Good Faith Challenge)을 「2020 비전(핵무기 철폐를 위한 긴급행동)」의 제 2기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하여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핵보유국에 대해 도시를 핵공격의 목표로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도시를 공격목표로 하지 말라(Cities Are Not Targets) 프로젝트」를 전개합니다.

핵무기는 도시를 파멸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비인도적이고도 비합법적인 무기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지금까지 도시를 인질로 하여 이용해 온 「핵억지론」과 「핵우산」의 허상을 폭로하고, 인도적·합법적인 입장에서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런 활동의 선두에 서 있는 것은 미국의 1139개 도시가 가맹한 전미시장회의입니다. 금년 6월의 총회에서 동회의는 자국을 포함한 핵보유국에 대해 핵공격의 표적에서 도시를 제외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해매는 양들을 핵무기에 의한 저주에서 해방시키고, 세계에 핵무기로부터의 자유를 가져오는 책임은 바야흐로 우리들 세계 시민과 도시에 있습니다. 바위라도 뚫는 굳은 의지와 타오르는 정열을 가진 우리들이 자각하고 떨쳐일어날 때가 온 것입니다.

일본국 정부에는 피폭자와 시민의 대변자로서 핵보유국에 대해 「핵무기 폐기를 위한 성실한 교섭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하는 세계적 운동을 전개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세계에 자랑할만한 평화헌법을 준수하고, 또한 「검은비 강우지역」과 해외의 피폭자도 포함하여 고령화한 피폭자의 실태에 맞는 인간본위의 따뜻한 원호책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직까지도 이름조차 모르는 많은 사물자의 영령들과, 올해 새로이 「성명불상자 다수」의 유혼을 첨부한 명부를 위령비에 봉헌했습니다. 모든 원폭희생자의 영전에 애도의 마음을 바치며, 인류의 미래의 안녕을 기원하며 합장합니다.

2006년 8월 6일

히로시마시장 秋 葉 忠 利

번역 : 일본컨벤션서비스 주식회사